

난가인상으로 연장생산 가담, 수급안정 위해 산란성계 도태 계획대로 진행해야...

이달의 계란 전망

경영정책국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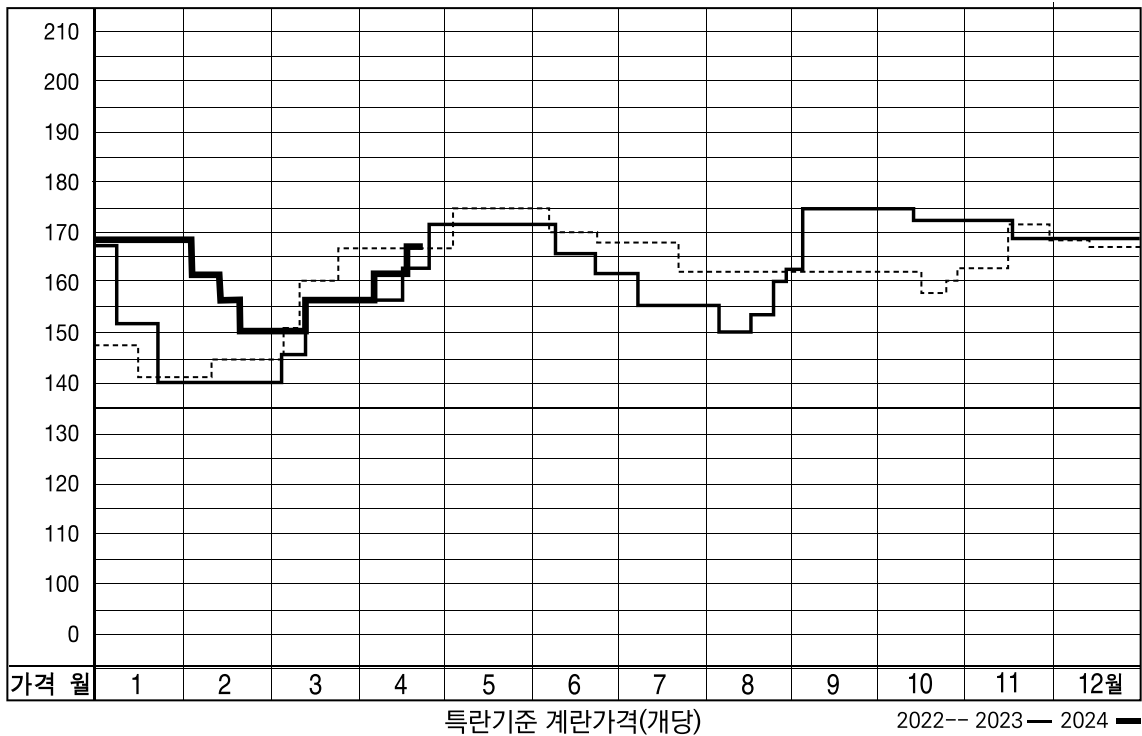
우리 업계를 괴롭혀 온 고병원성SI가 4월 16일부로 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전환되면서 평시 체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저병원성 SI와 소모성 질병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생산성에 영향을 가져와 계란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지난 4월 9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난가가 전 품목 11원씩 인상되었다. 난가인상으로 인해 연장생산에 돌입하는 농가들이 증가하면서 산란성계육 도태가 다소 추춤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월은 부활 특수 이외에는 특별한 소비요인이 없는 관계로 계란소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내 5대 할인점과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특란 30개 공급가격에 1천원을 지원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 자료분석

지난 3월에 입식된 산란종계는 91,900수로 1, 2월에 입식이 안 된 부분이 3월 한꺼번에 들어왔다. 예년 1분기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적은 물량이다. 또한, 금년 2/4분기 산란실용계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칠 지난해 3/4분기에 입식된 산란종계는 104,000수로 전년 동기 96,500수 대비 7%가 증가했다. 3월 산란실용계 입식수수는 4,788천수로 전년 동월 3,937천수 대비 21.6% 증가하면서 1~3월까지 전년에 비해 입식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월에 생산된 산란사료는 233,627천톤으로 전년 동월 243,096천톤 대비 3.9%감소했다. 같은 달 육추사료 생산실적은 30,573천톤으로 전년 동월 30,140천톤 대비 1.4% 증가했다. 한편 3월 산란성계육 도축실적은 3,631천수로 전년 동월 3,121천수 대비 16.3%로 나타났으나 2월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5월부터는 소비의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저병원성 SI 등 질병 감소로뿐만 아니라 계란생산에 가담하는 사육수수 증가와 환우계군의 생산가담으로 다시 생산이 정상적으로 받쳐주면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3월 산란성계 도계수수는 3,631천수로 전년 동월 3,120천수보다 16%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고 4월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3,000천수 이상이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란성계육 도태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여전히 산란계 생산수가 7,500만수를 기록하면서 적정 사육수수를 넘어서고 있다는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난가가 인상되면서 연장생산을 계획하는 농가는 과감히 도태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체 채란업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열쇠라 볼 수 있다.



■ 산란계관련 통계자료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21	153,199	4,261	30.1	217.7	1,213	1,700
	2022	27,000	4,300	30.0	266.7	1,650	1,455
	2023	29,121	3,879	28.1	239.2	1,450	1,515
	2024	0	4,427	30.9	260.2	1,450	1,680
2	2021	36,000	3,649	27.4	190.9	1,379	1,850
	2022	46,600	3,976	29.0	240.0	1,550	1,429
	2023	23,000	3,760	26.6	216.7	1,450	1,400
	2024	0	4,301	28.9	233.6	1,450	1,570
3	2021	154,936	3,577	33.3	204.2	1,638	1,813
	2022	70,000	4,644	32.7	275.5	1,550	1,592
	2023	46,000	3,937	30.1	243.0	1,450	1,516
	2024	91,900	4,788	30.5	239.3	1,450	1,577
4	2021	53,000	3,556	34.9	197.7	1,750	1,850
	2022	0	4,872	32.0	268.0	1,550	1,660
	2023	33,280	4,021	27.5	223.6	1,450	1,586
	2024						
5	2021	33,000	3,796	36.3	201.2	1,761	1,900
	2022	0	4,288	33.9	276.1	1,550	1,741
	2023	33,000	4,682	30.0	249.1	1,450	1,720
	2024						
6	2021	90,240	3,327	36.0	208.8	1,950	1,900
	2022	68,000	4,581	31.9	257.8	1,550	1,704
	2023	79,600	4,860	29.3	229.4	1,450	1,670
	2024						
7	2021						
	2022						
	2023						
	2024						
8	2021						
	2022						
	2023						
	2024						
9	2021						
	2022						
	2023						
	2024						
10	2021						
	2022						
	2023						
	2024						
11	2021						
	2022						
	2023						
	2024						
12	2021						
	2022						
	2023						
	2024						
계	2021						
	2022						
	2023						
	2024						